V. 참고자료

거세한우 장기비육해도 사료비 13% 절감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 사양관리요령 제시
비육전 조사료 최대급여하고 배합사료 제한급여
출하 전 6~7개월 배합사료 무제한 급여
육질1등급 출현율 56%, 소득 28% 증가

거세한우를 장기비육할 경우 고급육 출현율은 높아지지만 사육기간이 길어져 생산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축산기술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에 따르면 거세한우를 장기비육할 경우 육성기부터 비육전까지 방목 등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를 최대한 급여하는 대신 배합사료는 체중의 1.5%수준으로 제한급여하다가 출하전 6~7개월간만 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할 경우 사료비를 13%정도 절감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질 1등급 출현율이 기존의 33%에서 56%로, 육량A등급 출현율은 44%에서 67%로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증가도 28%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원모 연구관은 "봄에 생산된 송아지를 이용해 방목사육시 발육 및 사료비 절감, 육질에 대한 평가시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며 방목전에 배합사료를 제한급여할 경우가 방목전부터 고영양 상태를 유지했던 것보다 사료영양 이용이나 발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생산자단체중심의 자율발전 토대 구축

한우자조금제 도입 추진으로 자율발전토대 구축

자조금 조성 방안

□ 거세장려금 및 다산장려금에서 농가스스로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 해당조합에서 자조금을 조성하되 거세신청 농가로부터 거세신청서 작성시 자조금 납부서명을 받는다.

【 한우농가 거세신청서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세신청두수	자조금 참여의사서명

- 거세신청서에 서명한 농가에 대해 거세장려금 지급시 두당 일정액의 자조금을 적립 후 농가에 입금
  자조금 적립금액 및 운영은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해당조합에서는 매월 말 자조금 조성액을 정산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전국한우협회 자조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로 송금한다.

【 거세실적보고 】

조합명	거세두수	조성액	송금액	담당자 서명

- 관리위는 지역조합별 자조금 조성액을 집계하여 매월말 징수액을 익월 10일 이내에 감독기관(농림부)에 보고한다.
- 관리위는 매년말 예산집행사항을 정리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 해당조합에서는 자조금 조성시 소요되는 인력, 송금수수료 등의 일정 경비를 위하여 징수금액의 10%를 공제 후 송금할 수 있다.
- 자조금 예산집행 계획 및 결산보고를 의무화한다.

□ 쇠고기 및 생우 자조금 징수(추후 법제화시 가능)

- 쇠고기 수입업체 및 생우 수입업체는 매월 말 실제 수입량을 전국한우협회 자조금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일정금액을 한우 자조금으로 납부한다.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지난호에 이어 2001년 제5회 전국한우능력 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연재하니 평가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식 9개월째의 사양관리

□ 사양관리

- 농후사료 급여량 : 비육전(중)기사료 6kg내외(체중의 1.5%정도)
- 조사료 급여량 : 볏짚 2kg이상, 조사료 0.5~1.0kg정도 급여
- 총사료 급여량 : 8.5~9.0kg 급여수준(1일 1두당)

사료급여량에 대해서는 사양관리하는 사료회사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해당되는 사료회사와 긴밀하게 협조 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육최성기입니다. 몸무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뼈난 내장은 이미 성장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탈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가 마음껏 사료를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의 양이 부족하면 농후사료(배합사료)를 좀더 보충하여 주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증체시기가 겨울철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우사의 샛바람이나 직접 북풍이 부는 쪽의 우사는 방풍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온에 신경을 너무 쓴다고 우사바닥에 습기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맞바람은 막아주고 남쪽의 문은 한 낮을 이용하여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육최성기에는 소의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물의 공급은 이상이 없는지 사료는 남기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후사료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고창증이나 요석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에 염화암모늄을 특별하게 첨가시키지 않았으면 사료통 구석에 소금을 두어 소가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의 건강관찰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사료줄 때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변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료줄 때 사람 앞으로 활기차게 오는가? 등을 살려서 이상이 있으면 수의사나 농촌지도소, 지역축협 등에 연락을 취해서 치료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입식 10개월째의 사양관리

□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 급여량 : 비육중기사료 7kg내외(체중의 1.5%정도)
- 조사료 급여량 : 볏짚 2kg, 조사료 0.5kg정도 급여
- 총사료 급여량 : 9.0~9.5kg 급여수준(1일 1두당)

사료급여량에 대해서는 사료회사, 소의체중에 따라서 특별한 관리를 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유지사료를 기준량의 10%를 추가 급여합니다)
소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료를 좀더 많이 먹을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식초기에 정해진 양보다 사료를 덜 주어서 소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절반(50%)정도는 제한급여를 시키지 않고 어렸을때부터 사료를 많이「급여량기준이상」 급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입식후 비육전기(육성기)때 농후사료를 제한하고 조사료를 규정량 보다 많이 급여한「3kg 이상~4kg까지」 분 께서는 이제부터는 조사료를 제한하고 농후사료를 급여량보다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양관리를 하게되면 어렸을때의 제한된 체증증가가 요즈음에 증가하게 되는 성장「보상성장 또는 대상성장이라고도 함」을 노리는 사양관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시험사양」을 하고있는 방법은 「일본의 육질중시형 시스템:전농」을 일부 모방한 사양관리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양관리법이 완전한 사양관리냐? 그렇지 못하냐?를 일방적으로 결론내리지는 못하였지만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께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사양관리 방법으로 소를 키워 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결과는 어차피 올해 11월달에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를 비육시킬 때 어떻게 소를 사육하였는지를 기록해 놓아야 다름번의 자료로 쓸수가 있지 기록을 하여 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알았어도 다음에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료의 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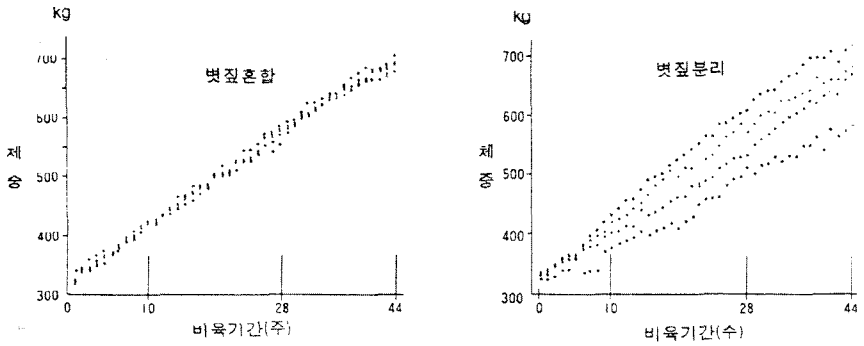
지금도 배합사료「농후사료」를 따로 급여하고 조사료(볏집 등)를 따로 급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볏짚의 급여도 통볏짚을 그냥 주는 분도 계시고 잘게 썰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소도 많이 사육하다 보면 사료를 급여하는 일 이외에도 조사료 구입, 재배와 깔짚의 투여와 제거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사료주는 일도 되도록 간편하게 하려합니다.
물론, 적은 노력으로 좋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에 좋다는 방법은 조금 힘이 들거나 귀찮은 일이라고 하여도 실천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사양관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배합사료(농후사료)와 조사료(볏짚)를 혼합하여 급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 각 개월령별로 섭취할수 없었던 배합사료나 조사료를 편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편식없이 섭취함에 따라서 제1위내의 향상성이 유지되어 제1위의 발육이 촉진됨에 따라 사료이용성의 향상이 이루어 집니다.
- 무리사육의 경우에는 소에 따라서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섭취상태가 달라 체중의 편차가 확대되지만 혼합급여는 이를 방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1두당 유효 사조폭을 확대시킵니다. 결국 1두당 사조폭이 80cm의 먹이통에서 혼합급여하면 1두당 80cm인데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별도로 급여하면 사조폭은 배합사료가 60cm 조사료가 20cm로 좁게 됩니다.

숨어있는 비밀
이렇게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혼합급여에는 무리사육(군사)에 있어서 최대의 포인트가 됩니다. 증체의 제일성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6] 볏짚 혼합급여와 분리급여에 의한 체중의 편차



자료:일본축농부 연구회

위 표에서 본 것은 일본에서 실험한 실증자료입니다.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해서 급여하였을때는 모든 소들이 700kg이 되어도 체중의 편차없이 골고루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후사료(배합사료)와 조사료(볏짚등)를 따로따로 급여할 경우에는 소 개체마다 종료체중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힘센 놈이 많이 먹고 힘이 없는소는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사료섭취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합사료와 조사료는 섞어서 급여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물등급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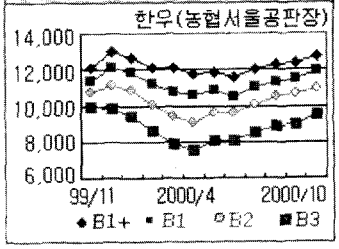
■ 등급별 경락가격

등급별 경락가격

▶농협서울공판장 (단위:원/kg)

종류	등급	99년평균	10월평균	11월 16일	11월 17일	전일비
한우	A1+	10,999	13,344	13,219	-	-
	B1+	10,294	12,746	12,727	12,658	- 69
	B1	9,852	11,910	11,691	11,132	- 559
	B2	9,030	10,912	10,647	10,527	- 120
	B3	8,085	9,485	9,805	9,538	- 267
	평균	8,910	10,643	10,738	10,544	- 194
암돼지	A	3,196	2,060	2,292	2,566	+ 274
	B	3,113	1,765	2,145	2,428	+ 283
	C	2,987	1,515	2,037	2,311	+ 274
	평균	2,934	1,654	1,954	2,260	+ 306

등급별경락가격 추이



■ 전국 소도체 등급별 출현두수(10월)

구분	한.....우				젖.....소					육.....우				교.....잡				전.....체			
등급	암	수	거	계	암	수	거	미산	계	암	수	거	계	암	수	거	계	암	수	거	계
A1+	629	3	130	762														629	3	130	762
A1	1742	140	261	2143				1	1						2		2	1742	142	261	2146
A2	2493	2659	325	5477	4	3	5	1	13						1	4	5	2497	2663	334	5495
A3	1001	16269	87	17357	7	2186	66	23	2282	2			2		13	87	100	1010	18468	240	19741
B1+	2491	7	194	2692	1			2	3									2492	7	194	2695
B1	7648	83	426	8157	5	2	4	38	49						4	2	6	7653	89	432	8212
B2	10454	831	499	11784	79	65	50	164	358	2			2	1	16	2	19	10536	912	551	12163
B3	4526	2449	109	7084	684	4860	327	644	6515	1	1		2	1	43	23	67	5212	7353	459	13668
C1+	309		38	347				1	1									309		38	348
C1	741	2	79	822	5		1	3	9						2		2	746	4	80	833
C2	1239	28	86	1353	61	5	4	22	92						6		6	1300	39	90	1451
C3	669	95	13	777	643	157	9	95	904						7	2	9	1312	259	24	1690
D	420	86	2	508	3417	82	1	93	3593									3837	168	3	4101
계	34362	22652	2249	59263	4906	7360	467	1087	13820	5	1	0	6	2	94	120	216	39275	30107	2836	73305

"생우 수입가능성 희박" 전망 우세

전문가들, 현지가 · 소요비용 등 감안 관측
송아지 도입 가능성은 대체로 배제 안해

▶ 내년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 팽배로 사육두수 급감과 계속되는 암소도축 등 국내 한우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최근 쇠고기 수입시장이 개방되어도 생우이 수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만약 생우가 수입될 경우 공통적으로 큰소의 수입보다는 송아지 수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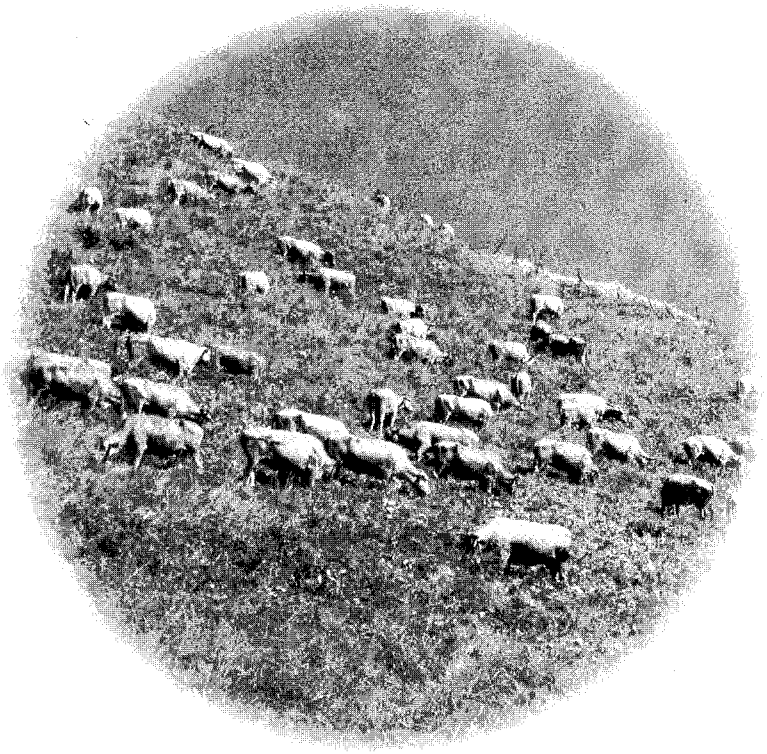
① 농협중앙회 한우연구소(소장 원유석)에 따르면 미국산 송아지의 거래 체중은 2백50kg전후로 현지가는 약 41만 3천원. 국내 송아지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선적항구까지의 육로 운송비, 검역비, 해상운송비, 보험료 및 수출업자 이윤 등에 41만2천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국내소요비용으로 L/C개설비와 육로 수송비, 검역비, 관세 및 수입업자 이윤 등을 합하여 55만6천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되어 송아지 한마리가 실수요자에게 보급되는 가격은 1백38만원 약 1백4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 허덕 연구관은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600~650파운드(약 2백83.5kg) 정도의 송아지가 수입될 경우 송아지 가격 59만 2천원과 운송비, 검역 수의사비, 사양관리비 등을 포함 국내공급가격 1백 40만원으로 추정했다.

③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문연 박사는 3백kg이하의 호주산 송아지는 관세와 운송비, 제반경비를 감안할 때 1백50~1백60만원에 국내 농가에 갖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수입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 또한 생우 수입시 각종 질병검사에 통과 해야만이 수출국 검역을 통과할 수 있으나 다른 질병과 달리 소 백혈병의 경우 4개월 간격 2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간격 단축 희망시 3회검사), 결핵의 경우는 선적전 60~90일간동안 감염여부를 검사해야하므로 송아지 수집시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수집을 하더라도 3~4개월간 사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우의 수용능력에 있어서도 부산검역소의 경우 생우 최대 수용능력은 야외 계류장과 특수 검역시설을 포함하여 약 3백여마리이다. 김포 불노리 계류장에 분산 수용을 한다 해도 최대 수용능력은 부산과 김포 계류장을 합해 모두 7~8백마리가 최대 수용능력이다.

▶ 따라서 1천5백마리를 선적할 수 있는 배에 분산수용까지 감안 8백여마리를 수송하는 것은 수입업자에게는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상기자료는 축산경제신문(2000년. 10. 16일자) 옥미영 기자가 쓴 기사내용을 편집한 것 임